

야고보 3-5
Tape #C2629
By Chuck Smith

Let's turn to James chapter three. James first of all warns against a desire to teach the Word of God that would stem or emanate just from your own desire to be in front of people or whatever.

My brethren, [he said,] be not many masters [or teachers] (3:1),

The idea of master there is a teacher,

knowing that we shall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3:1).

야고보서 3장을 펴시다.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 서려는 욕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의 욕망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3:1)

여기에서 주인의 의미는 곧 선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3:1)

Teaching the Word of God is an awesome responsibility, because when I stand here to teach God's Word, than I am responsible to be teaching the Word of God correctly. For if I do not teach the Word of God correctly, then those people that I may be leading astray, will be people for whom I will have to bear a responsibility. It is a heavy obligation to be a teacher of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설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을 그릇되게 인도한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은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Now, you can teach any other subject, doesn't matter if you are teaching something that will latter on be proved to be wrong, but if you are teaching the Word of God the consequences of the false teaching are so vast that as the teacher you will be held responsible. So don't be many masters knowing that we will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That is why I seek to be so careful in teaching the Word of God to keep, as much as possible, my own opinion out of it and speculation out of it completely.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목도 가르칠수 있으며 가르친 것이 틀렸다고 후에 밝혀진다해도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결과는 너무 방대하여 당신은 선생으로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거던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한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능한한 나의 의견을 빼고 추측도 완전히 뽑아버리려고 아주 조심합니다.

A lot of times people want you to speculate on a subject and to me that is extremely dangerous. There is a danger always in approaching the scriptures with a certain mind set. "I have a particular doctrine that I have embraced, I adhere to, and though there are scriptures that would seemingly contradict the position that I believe in. I then feel the necessity of somehow explaining away those scriptures. That is dangerous. I don't think that we should meddle or tamper with the Word of God. I think that we should keep it just as pure as possible as we seek to teach the Word. And so James warns that if we take upon ourselves that position of teacher just know that along with that position goes that awesome responsibility and that one day we will have to give an account before God of how straight forward we were in handling His Word.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가 보기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정해진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는데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내가 믿는 위치와 상반되는 것같은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수하는 특별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설명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견하거나 관섭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때 가능한한 순수성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스스로가 선생의 자리를 맡는다면 중대한 책임이 따라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똑바르게 다루웠는지 설명해야하는 날이 닥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Now the Bible warns of those who handle the Word of God deceitfully, and I have met so many people who handled the Word of God deceitfully.

Now James is gonna talk to us about something of which we all have a problem now or then, and that's our tongue.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항상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즉 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For in many things, [he said,] we offend all. And if any man offends not in word, the same is a perfect man, and is able also to bridle the whole body. Behold, we put bits in the horse's mouth, that they may obey us; and we turn about their whole body with that bit. Behold also the ships, which though they be so great, and are driven of fierce winds, yet are they turned about with a very small helm, whithersoever the governor desires. Even so the tongue is a little member, but it boasts great things. Behold, how great a matter just a little fire can kindle! (3:2-5).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썩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겨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불을 태우는가(3:2-5)

So in talking about the tongue, it's a very small part of our anatomy. But yet what trouble it can get us into. What fires it can spark. The tongue is something that has a capacity for great blessings or for great evil. We can use our tongues to bless people, to build them up, to encourage them, or we can use our tongues to destroy them. And he likens the tongue though it is such a small part of the body and yet able to do such great damage move so many things like the bridle in a horse's mouth, small but yet you can move that big horse around with just a little bridle in its mouth. The rudder on a ship, a small part of the ship, but yet it turns the ship. A huge ship turned by such a small rudder, so our tongues can really control in a sense our whole lives. An especially if we don't seek to control the tongue.

혀에 대하여 말하자면, 혀는 우리의 몸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려움을 일으킬수 있으며 불꽃을 일으켜 태울수도 있습니다. 혀는 큰 축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능력이나 큰 화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람들을 축복하고 덕을 세우며 격려하는 데 사용할수도 있고 남을 파멸시키기 위해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비유하기를 그것이 비록 몸의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큰 손상을 가져올수도 있으며 그것은 말의 입에 재갈처럼 많은 것을 움직일수 있습니다. 배의 방향키는 매우작은 부분이지만 배의 방향을 돌릴수 있습니다. 큰 배는 방향키에 의해 방향을 돌리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혀를 잘 지키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The tongue is a fire, a world of iniquity: so is the tongue among our members, it is capable of defiling the whole body, it sets on fire the course of nature; and is set on fire of Gehenna. [Now,] every kind of beasts, and bird, and serpent, and things of sea, is tame, and has been tamed by man (3:6-7).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자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3:6-7)

It is interesting how that man has been able to tame all kinds of creatures. We can tame lions, we've seen the lion tamers and we've watched them in the circus. Birds can be trained to talk, and to say phrases. Even serpents can be trained and you see the... in India the guy with his flute and the Boa constrictor you know doing its thing. And of course you can go down to Sea World or over to Marineland and see how they have trained the fish. Man has learned how to train and to bring into control all these of these wild things in nature. One thing man hasn't been able to tame is his own tongue,

but the tongue can no man tame; it is an unruly evil, and fully of deadly poison (3:8).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게 된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자를 길들일수도 있으며 실제로 사자 조련사를 많이 보았고 서커스단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새들도 말하도록 훈련시킬수 있습니다. 심지어 뱀도 훈련시킬수 있으며 인도에 가면 보아라는 큰 뱀을 피리로 조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세계 (Sea World) 나 머린랜드 (Marineland) 라는 곳에 가보면 물고기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살펴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여적으로 이 모든 야생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조절할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가지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3:8)

Jesus, one day, said something that is worth considering at this point. He said, "It's not really that which goes into a man that defiles a man, but that which comes out of a man that defiles him. For out of the mouth comes blasphemies and evil speaking." And then He said it is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at the mouth speaks" (Matthew 15:11, 18-19). That doesn't speak too good for our hearts does it? The mouth is the voice piece of the heart of man. The man reveals what's inside of him by his tongue. And sometimes that frightens me.

With the tongue we bless God, even the Father (3:9);

어느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라" (마태복음 (15:11,18-19)).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입은 사람의 마음을 소리로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혀로 나타냅니다. 그리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대단히 놀라게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3:9)

And isn't that the highest capacity of my tongue is when I use it to praise the Lord. We were singing tonight the praises unto God and that is the highest capacity for which I can use my tongue is use it to declare praises unto God. With our tongue we bless God even the Father,

but with the same tongue we curse men, who are made after the similitude or the likeness of God. Out of same mouth there proceeds blessings and cursings. Now this ought not to be. [James said there is an inconsistency here.] Does a fountain send forth at the same place sweet water and bitter? Can a fig tree bear olive berries? can a vine bear figs? so can no fountain both yield salt water and fresh (3:9-12).

내가 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혀를 사용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 아버지도 송축합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3:9-12).

And so there is a paradox in our tongue it's different from anything else. From the same mouth, there can come glorious praises unto God and horrible curses unto men. The tongue, God help us that we might be so yielded to the Spirit that He would do for us what we can't do for ourselves and that is bring our tongue under control.

우리의 혀에는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똑 같은 혀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독한 저주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성령께 급히게 하셔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도 하게하시고 우리의 혀를 다스릴수 있게 하실것입니다.

I've said so many things that I wish I had not of said; said in a moment of anger. How I wished I could have taken them back. And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I wish I had said that I didn't a word of encouragement, a word of forgiveness, a word of comfort. You know we sometimes just don't want to give that person that consolation of saying, "Well that's all right, I understand." If I only had said it though, I could have saved them so much mental anguish and turmoil. I could have let them know that it really didn't matter.

나는 말하지 안았더라면 좋았을 말들을 많이 하였고 순간적으로 화를 내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 그말들을 주워 담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격려의 말과 용서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가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겐 위로의 말을 “응, 그거 괜찮아, 충분히 이해해” 라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그들의 정신적 고뇌와 혼란을 훨씬 덜어 줄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해 줄수도 있었습니다

Now he goes on to another subject and that is of true wisdom.

Who is a wise man endued with knowledge among you? let him demonstrate it by his manner of life, by his works, with the meekness of wisdom. But if you have bitter envying or strife in your hearts, that's not wise, don't glory in it, and lie not against the truth. [That is a lie against the truth, the bitterness and striving and envyness within your heart.] For this kind of wisdom descends not from above. It's not Godly wisdom, it's earthly, it's sensual, it's devilish. For where envying and strife is there is confusion and every evil work. But the wisdom that is from above is first pure, then it is peaceable, it is

gentle, it is easy to be intreated, it is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t's without partiality, and without hypocrisy (3:13-17).

이제 야고보는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려하며 참된 지혜에 관하여 말하려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찌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3:13-17)

Oh, what a difference. That wisdom that is earthly, sensual, devilish, envying, striving, bitterness.

Now, what marks your life? What kind of wisdom comes forth from you? He says that you should show forth the wisdom by your manner of living. Demonstrate the wisdom. In reality our manner of life does demonstrate the source of our wisdom. And if I am constantly in strife, constantly in turmoil, constantly stirred up, constantly, you know, bad mouthing this person, that person, this thing, that thing, then that wisdom that I have is not of God. For the wisdom that comes from God has such marvelous characteristics, it's pure, it's peaceable it's gentle, easily intreated.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며, 시기와 다툼과 악독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어떤 종류의 지혜입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지혜를 내보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만일 내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고 계속해서 혼란스러우며 마음이 들 떠있고 이 사람 저사람을 헐 뜯으며 이런 일 과 저런 일을 나쁘게 말하면 내가 가진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And the fruit of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of them that makes peace (3:18).

So this is just good practical advice for getting along with people.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3:18)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이 됩니다.

제 4장 Chapter 4

This chapter could be entitled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Guard your tongue, bring your tongue under control, use it for good, use it to encourage to build up, don't use it to tear down, to destroy, to cut, to hurt. Your wisdom, let it be Godly wisdom let it be demonstrated in your manner of life, that is your life let it be pure. Let your life be peaceable, merciful. Now this fruit of righteousness that we desire is actually sown in peace and that fruit of righteousness will come. It is sown in peace of them that make peace. So seek to live in peace with each other, and that fruit of righteousness will come forth.

이 4장은 어떻게 친구를 사귀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부칠 수 있습니다. 너희의 혀를 감시하고, 절제하여서 선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도록 격려하며 험담하는 말이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을 성결케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또 화평하고 자비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이 의의 열매는 실제로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화평으로 심어져서 평화롭게 마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면 의의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But in contrast to the peace,

Where does the wars come from the fighting's among you, [the strife]? do they not come from your own lust that is warring in your members? You lust, and have not: you kill and desire to have, and cannot obtain: you fight and war, yet you have not (4:1-2).

그러나 평화와 반대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4:1-2)

Here James is declaring that most of the problems of man come basically from man's greed, and I would have to concur with this. I think it is the failure of our society. I think it is the failure of our government. Man's greed sooner or later gets in and corrupts. How corrupting is the greed of man, how it corrupts governments, the horrible thing of greed, and it's behind the wars. It is behind the fighting. It's behind the striving. That desire to have what belongs to someone else. The fighting, the wars among us. And yet we have not because he said,

because we ask not (4:2).

여기에서 야고보는 사람의 대부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것이 우리의 사회와 정부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조만간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부패했고 정부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것이 지독한 욕심 때문이고 전쟁과 싸움과 다툼의 배후에도 욕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싸움과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하니,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4:2)

You know a lot of these things that we desire, if we would just ask the Lord about them, and if it is right, God will give it to us. If it is not right he won't, because you can ask and receive not because you ask amiss, just to consume it on your own lusts. You see, people misunderstand the purpose of prayer. The purpose of prayer is never to get your will done upon the earth. And yet, how often we think of prayer as just that, the agency by which I can get my whims and wishes accomplished. "Now Lord I want you to do this and I want you to do that and I've got this list of things I want you to do before Friday." And we think of prayer as a marvelous agency by which I can get all my wishes and all my desires accomplished.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잘 아시겠죠.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것 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구할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결코 이 땅위에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빈번히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망상이나 소원을 이룰수 있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금요일 전에 해주시기를 바라는 항목을 적어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소원과 바라는 것들을 성취할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생각합니다.

I thought of prayer in that light for years. I was always trying to make deals with God. Now you do this and I will do this. How can you lose, trying to strike a bargain with the Lord? And I used prayer, or sought to use prayer, as a means by which I could fulfill my desires. I know a lot about this verse,

you ask, and receive not, because you ask amiss, to consume it upon your own lusts (4:3).

나도 수년 동안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흥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저도 저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면 손해 볼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내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를 이용하거나 기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4:3)

I prayed for some of those beautiful custom cars that used to drive around Santa Ana when I was in High school. Man, how I prayed for some of those cars. Well, they were for sale, but believe me; I was wanting it to consume it on my own lusts. Oh, I tried to strike a deal with God. I told him I would pick up kids and bring them to Sunday school. "You know Lord, I will give you the use of it a couple hours a week, after all." Boy, did my mind have plans for the rest of the week, cruising down Newport Beach.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나는 산타 아나 주변을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사용할 멋진 차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차를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차들을 값을 낮춰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정욕을 태우기 위해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 나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그 차에 태워 주일학교에 데려 오는데 쓰겠다고 하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일주일에 두 시간씩 당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맵소사, 내 마음에는 그 주에 할 일을 다 계획하였습니다, 뉴포트 비치에서 몰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So many of our prayers have selfish motivation behind them, and many times the selfish motivation is actually hid from us. But if I really begin to probe I find that behind the prayer there is a strong selfish motivation. There's my son; he's going astray a little bit. He is doing things I don't approve of, I wish he wasn't doing these things. I'm becoming concerned. He is coming in too late at night. He is running with bad companions. "Oh, God, turn my son around, bring him to a real commitment with Jesus Christ." In the deep deep of my heart, I'm thinking what if he should get in trouble, be arrested. Boy, what kind of headlines would that make? "Pastor's Son Arrested." I will be a disgrace to the family. We would have to go through the embarrassment of him being in jail. "Oh Lord save him, you know, bring him around," but what am I really thinking.

우리의 기도중 많은 부분은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동기들을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배후에 강한 이기적인 동기를 찾아 내려고 시작한다면 알게 됩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조금 방황합니다. 그는 내가 인정할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나는 그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나는 걱정이 되고 그는 밤 늦게 돌아옵니다.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오, 하나님, 내 아들이 돌아서게 하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헌신을 하도록 해 주세요." 내 마음 깊고 깊은 곳에는 만일 그가 나쁜것에 빠져들어 체포 되더라도하면 어떡하나하고 생각합니다. 신문 앞면에 대서 특필로 나오면 어떻게하나? "목사의 아들이 체포되었다." 나는 집안 망신시키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감옥에 가는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될것입니다. "오, 주님, 그를 구원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돌아서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Here's a husband, not walking with the Lord; "Oh God save my husband. Lord help him make a commitment to Jesus Christ." And in my heart I am thinking, "Boy it would be so nice if he were saved, I think he would treat me nicer, he would probably say grace before the meals and I think it is so wonderful when a family says grace before the meals. He would even go to church with me, and oh I wish he were sitting by me in church. Oh, Lord, save my husband." You see it is not that he is a rebel against God and he is going to be destroyed if he is not changed. It's not really for him, but it is for the conveniences that it might bring to me.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남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남편을 구해주세요. 주님, 그가 주님께 자신을 맡기도록 도와 주세요.” 그리고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가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을꼬. 그가 구원받게 되면 나를 훨씬 잘 대해주고 식사전에 기도도 할것이며 식사전에 가족이 기도 할때도 정말 놀랍게되리라고 나는 생각해. 심지어 나와 교회도 같이 갈것이고 교회에서도 나란히 같이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 주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뀌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리하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Prayer is not an agency by which my will is to be accomplished upon the earth. The purpose of prayer is to get God’s will to be accomplished upon the earth, and so many times we ask and receive not because the motive behind our asking is really that of accomplishing my will rather than God’s will. And if my will is in conflict with God’s will, God is not going to change His will to accommodate me, for God is not subservient to me, I am subservient to Him. And the purpose of prayer is never to change the mind of God to see things my way. It isn’t to persuade a reluctant God to do things my way. The real thrust and purpose of prayer is to get God’s will done. That’s why many times we ask and receive not because we ask amiss. Our own desires are too much entwined into it.

기도는 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배후의 동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저촉이 되면 내게 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도는 내 방법대로 하기를 꺼리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잘못 구하여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그 안에 함재 뒤엉켜 있습니다.

Now speaking in a spiritual sense he says,

You adulterers and adulteresses (4:4),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이여 (4:4)

This is speaking in a spiritual sense not physical in this particular passage. There are other passages that speak about in a physical sense but this happens to be spiritual because it is dealing with the love that is in your heart, the love for the world and the worldly things. You have been joined to Christ as His bride. Your chief love is to be directed towards Him. He is the one to whom you have been joined in marriage and if

you begin to love something other than Him, more than Him, than you have committed spiritual adultery in your heart.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의미의 간음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으나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결혼으로 합쳐진 신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분 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As God in the Old Testament was constantly accusing the people of Israel of adultery when they began to worship the other gods, so God speaks here against your love for the world.

Know ye not that the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and whosoever therefore would be a friend of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Do you not think that the...do you think that the scriptures speak in vain?" [The question mark should be there. And probably the second should also be a question.] do or does the spirit that dwells in you lust to envy? (4:4-5).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사랑도 책망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 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4:4-5)

Now surely the spirit of God doesn't lead us to envy, He doesn't desire us to envy. The scriptures do not speak in vain. The love of the world, the things of the world is spiritual adultery. "Love not the world,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For he that hath the love of the world in his heart, hath not the love of the Father.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are of the world and are not of God" (1 John 2:15-16). Coupled, "know ye not that friendship with world is enmity with God." If you're going to be a friend of the world, if your going to be doing the worldly things, engrossed in worldly things, caught up in worldly things, your heart is in the worldly things. You're putting yourself in the position of being an enemy of God.

But God gives more grace. Wherefore He saith, God resists the proud but He gives grace to the humble. Therefore submit yourselves to God and resist the Devil (4:6-7).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은 우리를 질투하도록 이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이 헛된 말을 하지않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한일서 2:15-16).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되게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일을 하려고 하며 세상 일에 열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4:6-7)

Now it is the Devil that seeks to entice us to find fulfillment in the world by lying to us and telling us that we can find all the contentment, and joy and happiness that we desire if we will just turn from God’s path and walk after our own desires of the flesh. Satan’s appeal is so strong because he appeals to that, which I am interested in, my flesh, the desires of my flesh. And he is basically saying, “Hey, go for it. You’ll find that fulfillment, you’ll find that excitement, you’ll find what you’re looking for, just go for it. Go for the flesh.” And God is saying, “No, that’s death. If you really want life, spiritual life, then seek after the Spirit, and the things that are of the Spirit. Walk after the Spirit.”

마귀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 서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살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게되리라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호소가 너무나 강력해서 내 육체의 정욕에 흥미를 가지도록 합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보게, 그렇게 해보렴. 만족을 느끼게 되고 흥분하게 되며 자네가 찾는것을 발견할테니, 한번 해봐. 육신을 좇아서 한번 해보라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아니야, 그건 죽는 길이야. 정말 생명을 원하며 영적인 삶을 원한다면, 성령을 좇아 영적인 일을 추구 해야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고 하십니다.

There is a warfare between your flesh and your spirit. And Satan is there to encourage you to go after the Spirit and the Lord is there to encourage...I mean he is there to encourage you to go after the flesh and the Lord is there to encourage you to go after the Spirit. So submit yourself to God, an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4:7).

여러분의 육신과 영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육을 좇아 살도록 격려하지만 주님은 성령을 좇아 살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4:7)

I like that. I think that many times our problem is just that we really aren’t standing up for right. We’re not really resisting, as we should, the Devil. I think that there are important keys in life and in this spiritual life and this warfare that we are in. “For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se principalities and

powers” (Ephesians 6:12). And I think the first thing is the recognition that they do exist. And I think that we need to recognize the source of the attack against us. Many times we can't deal with it because we don't recognize that is a spiritual battle and I'm really involved a battle against this force of evil, this spirit of evil, Satan himself or one of his emissaries. Once I recognize the source of my problem, then I can begin to deal with it. But so many times we are told to pass it off. “Well I'm just irritable today. I'm just miserable. I'm just ready to chew up anybody that gets in my way. Out of sorts,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But you know.” But we don't recognize that this is a real spiritual conquest. This whole thing that I feel, this heaviness and all is actually a satanic source, a power that is trying to defeat me.

그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옳은것을 위하여 진실로 바로 서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마귀에게 대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중요한 열쇠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내가 생각하기에 첫째는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원천을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다룰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악한 세력이나 이 악한 영이나 또 사탄 자신이나 그의 사자들 중의 하나와 실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 문제의 근원을 알게되면 그것을 다룰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을 얼버무려 버리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속상해, 내가 괴로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물어 뜯고 싶어. 그런 일때문에 간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러나 너는 이해할거야.”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영적인 전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는 전부가 실제로는 근원이 사탄에게 있고 나를 패배시키려는 사탄의 악한 세력입니다.

Now if I failed to recognize it I can just go on in this miserable way all day long. But if I recognize that “hey this isn't of God, this isn't of God's Spirit, this isn't how God would want me to be, this is an attack of Satan against me.” Recognizing it, I deal with it by resisting it. Resisting the Devil and he will flee.

만일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온 종일 괴롭게 지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온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게 아니야. 이것은 나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야”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마귀를 대적하여 그 일을 처리할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And then the third “R” is rejoicing. So recognize, resist and then rejoice in the victory we have in Jesus Christ, over every principality and power that might come against us. I don't have to be irritable. I don't have to be cranky. I can resist the Devil, that mood, that spirit that he is trying to bring me under. And I can rejoice for I have the full victory in Jesus Christ, and it's amazing how it can change the whole atmosphere around you.

세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대적하고 그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사와 우리를 대적하는 권세를 이긴 승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속 상할것 없습니다. 속이 뒤집힐것

없습니다. 내가 그를 나에게 굴복하게 하리라는 그 기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을 기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것입니다.

Now the second part of this is

draw nigh to God and he will draw nigh to you (4:8).

You see here I am, in the midst of the battle here. Resist the Devil, he'll flee, but on the other hand draw nigh to God and he will draw nigh to you. I love that. All I have to do is just start drawing near to the Lord.

이제 4장에서 두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4:8)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전쟁중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그게 참 좋습니다. 내가 해야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It's so important it's how we program our minds. It's so important what we're feeding into our minds. And God help us in this corrupt age in which we are living. With all of the technology that has brought into our homes such filth. The television has been a purveyor of such evil. It can be good; television itself I mean it's a thing. It's not evil in itself, but it has the capacity to bring evil into your mind into your life, and it also has the capacity to bring good but it's how you control it, where your dial is turned. But I think of the evil that we will program into our minds as we sit there and watch the TV. And and it's terrible. No wonder we're having all of these marital problems and immorality just flooding our nation. It's being planted into the minds of people day after day as they watch TV. Murders, thievery, adultery, the whole thing, it's all there. And Paul when he made the list there in Romans of these horrible things that people were doing, he said not only do they do them but they take pleasure in those that do. And how is it that a person takes pleasure in watching someone snuff someone out you know. We see these TV and on movies. People pay to see that kind of filth. Pay to pollute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프로그램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 넣느냐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온갖 기술로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집 안으로 끌어옵니다. 텔레비전 역시 그러한 악을 공급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텔레비전 자체는 물건으로 선하게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알을 돌림에 따라 악한 것을 마음과 삶에 가져다 줄 기능도 있고 또한 선한 것을 가져다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때 우리의 마음속에 푸로그램되는 것들은 악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나쁩니다. 부도덕한 일들이 우리 나라에 홍수처럼 몰려오니 결혼 문제들이 많은 것은 이상할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매일

볼때 그들의 마음속에 살인, 도적질, 강간, 등등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끔찍한 것들을 하나씩 열거했을 때 그들이 그 악한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즐길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더러운 것을 보려고 돈을 지불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And then we get caught up in the law of nature “whatsoever a man sows that shall he also reap” (Galatians 6:7). I’m sowing to the flesh and I begin to reap of the flesh, envying, striving, seditions, murder. How well if we would just get good inspiring music and play it in our homes. What a difference it makes. What a difference it creates within the atmosphere you see we’re sowing now to the Spirit. If in the morning as your children are getting ready for school they come in for breakfast there’s praise music on or maybe one of the kids albums on. You’re planting into their minds and into their hearts the things of the Spirit. God knows when they get to school they’re going to get all kinds of crud thrown at them. We need to counterbalance it within the home. And rather than allowing them to listen to a lot of this junk music with filthy lyrics. That we would actively encourage them by ourselves playing and listening to inspiring music. Again whatsoever a man sows that shall he also reap. And if you have that kind of atmosphere, sowing to the Spirit you’re going to reap the Spirit.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는 자연법칙에 따릅니다. 내가 육신을 좇아 심으면 육신의 열매인 시기과 다툼과 선동과 살인으로 거둡니다. 만일 좋은 영감을 주는 음악을 골라서 집안에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날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심는 그러한 환경에 일어나는 차이는 클것입니다. 만일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아침식사를 하러오면 찬양 음악이나 어린이 찬양 앨범을 듣게합니다. 그렇게하면 여러분은 자녀들의 마음에 영적인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학교에 갈때 그들에게 온갖 나쁜 것을 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들에게 쓰레기 같은 나쁜 가사의 음악을 듣게 허용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듣도록 해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둘것입니다.

Cleanse your hands, you sinners;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4:8).

You know, that’s the problem. David said, “Lord, unite my heart to serve thee” (Psalm 86:11). The divided heart that’s the problem of so many people. Yes, I want to serve the Lord. Yes, I want to follow Him. Yes, I want to spend eternity with Him, and yet there is another side of me that wants to go after the flesh and indulge the flesh.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4:8)

아시다시피,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일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시편 86:11).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홀으진 마음입니다. 예 주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내 자신이 욕신을 좇아 그것에 몰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The afflicted and mourned, weep let your laughter be turned to mourning, your joy to heaviness. Humble yourself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shall lift you up. Speak not evil one of another brethren. He that speaks evil of his brethren judges his brother, speaks evil of the Law and judges the Law, but if you are a judge of the Law than you are not a doer of the Law, but a judge. And there is one lawgiver that is able to save and to destroy, and who are you to judge another? (4:9-12)

So forego that condemnation or judgment on another. You're not a judge of the Law. We're to be the doers of the Law, obedient to the Law.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찌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찌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4:9-12)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실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Go to now, ye that say, Today or tomorrow we will go into such a city, and continue there a year, and buy and sell, and get gain. Because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For what is your life? It is only a vapor that appears for a little time and then vanishes away. Therefore you ought to say, if the Lord wills, and if we live, we will do this or that (4:13-15).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늘(4:13-15)

So that exhortation, by James to us, to take into consideration, God's will in all of our planning, to make that a contingency to every plan. It isn't that you should've planned the future, but you should always have the contingency of the Lord's will, if it's the Lord's will. Because I don't know what tomorrow holds. I don't know whether or not I will even be here tomorrow, but if the Lord wills this is what I desire, this is what I plan to do. If the Lord doesn't will it, than I don't want to do it, but that should always be a contingency to every plan I make. I need to realize that my life is short. It's just a vapor that appears for a short moment and then vanishes. I'm here for just a short time, that I need to spend the time that I'm here in something that is worth while, in something that will last eternally. Too much of our life, too much of our effort, too

much of our time is spent on things that are not eternal, things that are going to pass away.

야고보가 우리에게 신중히 생각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래의 계획을 했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일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르지만 만일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세우는 계획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합니다. 내 생애가 짧은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내가 여기에 짧은 기간동안 있을 것이므로 내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을 가치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대부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을 영원하지 않고 잠시후에 없어질것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Too many people spend their life eating cotton candy. It maybe sweet, but there is no substance. It dissolves it's gone. Those things that you do, things of the flesh, things for the flesh, they are dissolved. They are gone. They're wasted. I have so many times come to the end of the day and thought what a wasted day. Usually it's New Years Day after I've watched all the football games, and you finally get to the Rose Bowl and the Big Ten won, and I think, "oh what a wasted day." You know you use up a lot of emotion and everything else, but all I did was sit around all day long eat and watch the game. And there was a lot of things that needed to be done out in the yard. I could have spent the time more profitably. We waste too much time. We need to spend our time more profitably, in things that profit for eternity.

But you now rejoice [he said] in your boasting, and you now rejoice in that which is evil. Therefore to him who knows to do good, and doesn't do it, to him it is sin (4:16-17).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솜사탕을 먹는데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콤하긴 하겠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녹아서 없어지고 나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좇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처럼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저 사라져버리는 낭비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 괜한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정월 초하룻날 모든 풋볼 게임을 본후에 로즈 보울과 빅텐을 본후에 “오 괜한 시간 낭비였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감정과 그외 모든것을 다 쓰지만 내가 한것 전부가 하루 종일 앉아서 먹고 게임만 보는 것이 었습니다. 밖에는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좀더 유익하게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좀더 유익하게 보내야하겠고 영원의 유익을 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4:16-17)

In other words, sin isn't just something that I do that I shouldn't. Sin is also something that I don't do that I should. Oh, I know I ought to do it, oh, I know I ought to go over there and help him out, but I don't. To him that knows to do good and doesn't do it, that's sin. The sin of omission, the failure to do that which I ought to do.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서는 안되는 것을 내가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빼먹는 죄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Chapter 5

Now in chapter five he takes on the rich. So this doesn't apply to many of us.

Go to now, ye rich men, weep and howl for your miseries that shall come upon you. Your riches are corrupted, your garments are moth-eaten. Your gold and silver are cankered; and the rust of them shall be a witness against you, and shall eat your flesh as it were fire. Ye have heaped treasure together for the last days (5:1-3).

So he speaks of the rich and heaping up treasure for the last days, talking of their gold and silver. And to me it is extremely fascinating how that the rich people have to worry about the security of their money. What is safe, what is a safe investment? You know, how safe are the banks? What if Mexico and Argentina default on their loans, what's that going to do to the whole banking community? Is it going to bring it down like a row of dominos? Oh but it's guaranteed by an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

야고보서 제 5장에서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1-3).

야고보는 부자들과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쌓아둔 보물, 즉 은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 부자들이 자기들의 돈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참 가관입니다. 무엇이 안전한 투자입니까? 아시다시피, 은행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만일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자기들의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이 전체 은행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쇄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오, 그러나 은행은 연방정부 기관에 의해 보증됩니다.

Read the fine print. You know the whole banking system goes down, there isn't enough in that agency to bail out American savings and loans.

So where can I put my money so that it can really be safe? How safe are T-bills, how solvent is the government? Man, it's the greatest debtor of anything in the world; I guess 300 billion dollars. Well, buy gold buy silver. A lot of people bought gold and silver, and they bought gold and silver for 900 dollars, gold for nine dollars an ounce, and now they can get 349 dollars an ounce. But that is all an artificial value. I mean what can you do for gold, with gold, except to say, "Well, I've got so many **Krugerrands**." It's all an artificial. Diamonds, buy diamonds, invest in diamonds, you know. It's all artificial value. It's just a stone. Hey, when things get really bad you can't eat it. You know when things are really bad that's what you think about, "what am I going to eat?"

작은 글씨를 잘 읽어 보십시오. 전체 은행제도가 실패하게 되면 미국의 저축은행과 과용자은행들을 구출해 낼만한 신통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전하게 내 돈을 넣어둘수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부의 어음은 얼마나 안전하며 지불 능력은 어떠한습니까? 정부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3000억불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역자주: 지금은 몇 조가 될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사라고 사람들은 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을 샀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한 온스에 900불씩 주고 샀으며 현재 금 값은 한 온스당 349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이 조작한 값입니다. 내 말은 금을 가지고 "아, 나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외에 뭘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모든것이 인간의 조작입니다. 다이몬드 라구요? 다이몬드를 사서 투자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다 인간들의 조작입니다. 그것은 단지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면 그것을 먹을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아주 나빠지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하는것임을 잘아시지 않습니까?

The Bible tells us that there's coming a time that it'll take a bag of gold to buy a loaf of bread. So when it really gets down to it and you really need something to eat you're going to have to get rid of that gold, and who knows what value will be placed upon it at that time I mean.

성경은 우리에게 한 덩어리의 빵을 사기 위해서 한 주머니의 금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금을 처분하여 먹을 것을 사야 할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치가 어떻게 바뀔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You know I like a gold ring, this is not really a gold watch, it's gold plate, cheap. But as far as true value, where is true value? The true value is only in spiritual things. That's the only true value that we can really know, in spiritual things, not in the earthly material things. That value is all artificial. It's like one poet said, "It's only worth what you can get for it." "Well," but he says, "I have a house that's worth 500,000 dollars." Well, how much can you sell it for? "Well we've had it on the market you know for three years for 350,000 we haven't sold it, but it's worth 500." No it's not; it's only worth what you can get for it. Artificial values. And those that have placed their whole thing into gold, those that have bought up gold and silver for the last days, how disappointed they're going to be.

나는 금반지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진짜 금시계가 아니라 그냥 금 칠을 한 싸구려 시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보고자 하는데, 어디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오직 영적 인 것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알수있는 진정한 가치는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모두 인위적인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수 있는 만큼의 가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500,000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집을 얼마에 팔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집을 350,000불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3년 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500불의 가치 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살수 있는 값, 그 값어치 밖에 없어요. 인위적인 가치입니다. 마지막 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가 산 금이나 은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될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할것입니다.

“Weep and howl,” James said, “for the misery that is coming upon them,” cause you’ve tried to set yourselves up for these last days, you’ve tried to hedge against inflation by getting into gold, by getting into silver but now they’re worthless.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을 위하여 금과 은을 쌓아두고 경제공황을 피하여 금과 은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것들이 다 가치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Behold, the hire of the laborers who have reaped your fields, which is of you kept back from them through fraud, they cry: and the cries of them which have reaped are entered into the ears of the Lord of Sabbath. You have lived in pleasure on the earth, and been wanton; you have nourished your hearts, as in the day of slaughter. You have condemned and killed the just one; and he did not resist you (5:4-6).

So the Lord or James speaks out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poor or the oppression of the laborer by management, cries for inequity.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아니한 값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4-6)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노동자들을 함당치 않게 부려 억압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Verse seven he changes and now he is exhorting us to

Be patient for the coming of the Lord. For behold the husbandmen waits for the precious fruit of the earth, and has long patience for it, until he receive the early and latter rain. Be ye also patient; establish your hearts: for the coming of the Lord is drawing nigh (5:7-8).

7절에서 이제 야고보는 그 말하는 바를 바꾸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 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7-8)

Now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so many places in the scripture we are exhorted towards patience, as far as the return of Jesus Christ is concerned. Peter, exhorts towards patience for much the same reason, that the long suffering of God is the salvation of the lost. Here exhortation to patience because the Lord is waiting for the precious fruit of harvest.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까지 인내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 나에게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이유로 인내하라고 권고하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은 잃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수확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야고보도 인내하라고 여기서 권고합니다.

If the Lord had come ten years ago where would a lot of you been tonight? Five years ago where would a lot of you been? So the Lord is waiting for the latter rain, that is the final harvest of souls. And I believe that we are beginning to see a tremendous harvest of souls through out the world that I do believe is the foreshadowing of the return of Jesus Christ. I think that the Lord is giving the final opportunity to man. We've come just about the end of the rope and God has thrown out for the final time the opportunity of people to get right with God, and I think that it will soon be over. But have patience establish your hearts. The Lord, the husbandman is waiting for the precious fruit of harvest.

우리 주님이 10년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오늘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년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셨던가요? 주님께서서는 영혼들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적으로 많은 영혼들의 추수를 보기 시작할 것이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밭줄의 끝자락을 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수 있는 기회의 마지막 시간이며 불원간 끝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하여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추수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Grudge not on against another, brethren, unless you be condemned, because the judge is standing at the door. Take the prophets who have spoken in the name of the Lord, as an example of suffering affliction, and of patience (5:9-10).

So look what they endured, the prophets. Look what Jeremiah endured, look what Isaiah endured and others of the prophet, Elijah and Elisha, the things that they suffered because of their stand for God. They are an example of suffering, affliction and of patience.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5:9-10)

선지자들이 무엇을 참고 견디었는지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무엇을 인내했으며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엇을 인내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 당한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인내한 우리들이 본 받아야할 사람들입니다.

Behold, we count them happy which endure. You've heard of the patience of Job, and have seen the end of the Lord; that the Lord is very full of pity and He's of tender mercy (5:11).

God is full of pity. And in the Psalm, 103 the Lord is full of pity. "For He knows our frame that we are but dust" (Psalm 103:14). God, when He looks at you, doesn't expect to see a superman, or a super saint. He knows you're dust anyhow. That's why He's so merciful, because He knows your frame. That is why we are not so merciful so many times on ourselves, because we think we are more than dust. "Well I'm a rock, I'm strong, I'm able, you know I can do it." And then we get fractured, and we get discouraged and disappointed and we think that God is all upset with us. No, no, no. He's not upset. He's merciful. He knew all the time you were but dust. It was you that made the mistake, you that over estimated your capabilities, not God. You didn't disappoint Him. He knew all the time. It was important that you know what He knows and so He lets you fall on your face. The Lord is full of pity and tender mercy.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5:11)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찬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신 분으로 나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편 103: 14).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초 인간이나 특별한 성자를 보실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토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나는 바위처럼 튼튼하고 강하며, 잘 아시겠지만, 그건 능히 할수있어." 그리고 나서는 부서지고 사기가 죽고 또 실망하게 되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를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계십니다. 실수했다고 생각하는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것은 여러분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것이 중요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져 콧방아를 찧도록 버려 두신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고 부드러운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But above all things, my brothers, swear not, neither by Heaven, neither by the earth, neither by any other oath: but let your yes be yes; and let your no, be no; lest you fall into condemnation (5:12).

Now a man often times, if he is a liar, is constantly swearing that he is telling the truth. And that is why I am often suspicious of the person that is constantly affirming, "Oh, this is the God's honest truth man." I become very suspicious when they are constantly affirming that what they tell you is true. If it is true, than you don't need to constantly affirm it. And James is actually saying don't swear. "I'll do it, I'll do it, I promise I'll do it, you know. Swear by Heaven, I'll be there." No, no, no. Just let your yes be a yes, and let your no be a no. Jesus said the same thing in the Sermon on the Mount. Be a man or a person of your word. If you say yes, mean yes, and if you say no, mean no. And don't be the kind of a person that you have to swear to cause someone to believe you are telling the truth.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5:12)

어떤 사람이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면 계속해서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맹세를 자주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사람입니다" 라고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을 주려는 사람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내가 그걸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하기로 약속할게, 알았지. 하늘을 두고 내가 여기 있기로 맹세하마."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는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십시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똑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예라고 할것은 예로 대답하고 아닌것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는것을 믿게하려고 맹세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Now] is any among you afflicted? let him pray. Is any happy? let him sing psalms. Is there any sick among you? let him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let them pray over him, anointing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 the faith will save the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them up (5:13-15);

Now it is interesting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afflictions and sickness. And I don't always know that we can discern between is this an affliction or is this a sickness. But it would seem that afflictions are used by God for the purposes of correction. That when afflictions come than I need to pray, I need to find out from God what He's trying to teach me, what He's trying to tell me.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5:13-15)

고난과 병든것을 구별하는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나 자신도 이것이 고난인지 아니면 이것이 병인지를 분간할수 있는지를 항상 알수있는 것은 아니며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바르게 고칠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시려고 하시는 지 또 무엇을 말씀해주시려는지 찾아내야만 합니다.

You see our problem is that we are not often sensitive to the things of the spirit. There seems to be a spiritual dullness that is quite prevalent among the church. It's like Romaine said, "He's gotta beat you over the head with a two-by-four to get your attention before He can talk to you." If God has to beat you over the head with a two-by-four and you're afflicted then you need to pray and find out what God is trying to say. And so if you are afflicted than it says, "let him pray." That is, God is probably trying to get your attention in some area of your life, and He sometimes has to use rather harsh or painful means.

여러분들도 하시듯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 유행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목사인 로메인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막대기로 당신의 머리를 쳐야쳐야 한다"고 말한것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막대기로 때려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그때야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알아 낼려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마 당신의 삶의 어느 부분에 주의를 기우리게 하시려는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거칠고 아픈 방법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In psalm 32, as the Lord speaks to the psalmist, He said, "look, I want to guide you with my eye, don't be like a mule who you have to put a bit in its mouth to lead it around" (Psalm 32:8-9). Now the bit is very painful and the reason the mule will turn when you pull on the reins is because it pulls the bit up against his mouth. It hurts. So he will turn his head, because it hurts.

시편 32편에서, 주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갈 길을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찌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2:8-9). 자갈과 굴레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고삐를 잡아 당길때 노새가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자갈과 굴레가 그의 입을 밀고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주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말이나 노쇠가 고개를 돌립니다.

Now God is saying to you don't be so stubborn like a mule that I have to use painful processes to get you to turn. I would guide you with my eye, I want you to be sensitive to my will and my plan, and I'll be glad to just guide you with my eye. God doesn't want to guide us with painful processes, but He loves us so much that He will, because it is that important that I be guided by the spirit of God, and He knows it is for my best welfare that I walk in this path. And if I start to stray and it I won't listen, He'll use the bit or the bridal. He'll pull me back into position. It maybe a painful experience, "Oh Lord what's happening." Well, you were off track. I wasn't listening, I was headstrong, I was gonna do it.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이나 노새처럼 미련하게 되어서 돌아 서도록 하기위해 아픔을 주는 과정을 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민감하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나의 눈으로 즐거이 너희를 지도하리라.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갈과 굴레를 사용하실것입니다. 하나님이 끈을 당겨 제자리에 가도록 하실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운 경험이 될수 있으며 “오 주님, 무슨 일입니까?” 네가 걸길로 나갔어. 나는 귀를 기우리지 않았습디다. 내가 내 고집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할려고 했습니다.

Paul the apostle, the Lord used the bit and bridal with Paul because he was so headstrong so many times. But if you are afflicted, pray. If you're merry, sing psalms, rejoice. If you're sick, then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The elders of the church meet here on Saturday nights to pray for the sick.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sick, and the Lord shall raise them up; and if they have committed sins they shall be forgiven (5:15).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삐를 당기시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번번히 자기 고집대로 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즐겁거든, 찬송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5 :15)

It is interesting that there seems to be a correlation here between sickness and sin at least in the deliverance of sickness and in the forgiveness of sins. And it is interesting how many sicknesses can be related to sin in a very direct way. And yet on the other hand, let me say that I think that it is a very dangerous error to try to relate all sickness to sin. And you are then putting yourself in the position of a judge and you're judging wrongly many times, saying, "Well, they've got it coming to them." And I think that is cruel and dangerous to say that all sickness is the result of sin in a person's life. Not at all.

[Now]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at you may be healed [that is of your faults.] (5:16).

병에서 치유되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에서 볼수있음 같이 여기에서 질병과 죄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있는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매우 직접적인 방법으로 죄와 관계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로운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질병을 죄와 관련시키는 위험한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자신을 재판관 자리에 놓고서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여 “그들은 이러한 죄를 지어서 아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개인의 생활에서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5:16)*

I think that...you notice it doesn't say confess your sins, it's confessing your faults one to another. We confess our sins to God, and He'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I may have a weakness in my life and I am very often confessing my faults to you. Not for you to just laugh at me, which you often do when I tell you of my problems on the freeway. Hey, but freeways are coming along. I'm improving. On the way to church this morning, two cars pulled out in front of me and I counted it all joy. I passed the test today, but that doesn't guarantee tomorrow, but pray for me.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내가 생각하기로는... 잘 보십시오. 너희 죄를 자백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 삶에 약점이 있을수 있고 나는 내 잘못을 빈번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빈번히 웃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내가 운전하는데 진전이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차 두대가 내 앞으로 들어 왔으며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합격했으나 내일에는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We each of us have our faults our failures, those areas in our lives where we need to yield more to the Spirit of God and find His strength and find His help. It's good to have a prayer partner that you can just open up to and say, "Hey, I'm having a problem in this particular area pray for me will you."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pray one for another, that you may be
healed. For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eth much (5:16).*

우리들 각자에게 다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그러한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동역자가 있어서 털어 놓고 "내게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주세요" 라고 말할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5:16)*

Our son in law was getting after our little three-year-old granddaughter, because her prayers seem to be developing sort of a rote. And he said, "Now Kristen, when you pray, you should pray not just quick little prayers, and the same prayer every time, but

really start praying from your heart and really mean your prayers. Think about them and really mean your prayers when you talk to God." Because she was usually just praying, "God bless our food, strengthen our bodies, in Jesus name, Amen," and then start eating. So dinnertime came and they called on her to pray and she said, "Lord, bless our food. I mean really bless our food Lord."

우리의 사위는 3살 짜리 손녀가 기계적으로 기도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크리스틴, 기도할때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얼른 해치우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는것을 기도하기 시작해라. 생각해 보렴, 하나님에게 기도할때 생각해보고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해라." 왜냐하면 손녀가 하는 기도는 통상 "하나님, 우리의 음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식사 시간이 되면 그 아이를 불러서 기도하라고하면, "주님, 우리의 음식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로 우리의 음식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하고 기도했습니다.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And this is the thing that I always get a charge out of.

Elijah was a man subject to the same things that we are (5:17).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러한 기도로 충전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5:17)

He was just like you. A man of like passions just like us. We usually read of these people in the Bible: Elijah, Elisha and Joshua and Moses and Paul and Peter. We usually think of them in a category that is sort of up here and I am down here. And we sort of think of the things that they did as completely unattainable by the common ordinary person. But Elijah was a man of like passions just like you, no different from you.

And yet he prayed earnestly that it might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earth for the space of three years and six months (5:17).

엘리야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상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읽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여호수아, 모세, 바울, 그리고 베드로. 우리는 통상 이 분들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들은 평범한 범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러분들과 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며 여러분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5:17)

Now can you imagine that? A man just like you praying and earnestly saying, "God don't let it rain. Let these people learn through a drought to call upon Your name and all and cut off the rain." A man of like passions just like you.

And yet he prayed again and the heaven gave rain and the earth brought forth her fruit (5:18).

이제 그것을 상상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우도록 비를 끊어주소서.” 엘리야는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5:18)

Here was a man controlling the weather with his prayers. A man just like you. That amazes me.

여기에 오직 기도함으로 날씨를 조절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으며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Years ago when a lot of hippies were around here we had a (the hippies are still here but they have disguised themselves now. They shave.), but we had a summer camp up here at Idyllwild. In fact I think there is still a picture in the office of the summer camp that we had up there. And this one afternoon at dinnertime it started pouring rain, just pouring down. We had a tin roof and it seems to magnify even the intensity of the rain. But you know how the mountain summer rains are the thunderheads, and just really pouring. So at dinner time in the announcements, I announced that we would have the outside Victory Circle meeting, and the kids said, "We can't have it. It is pouring rain." I said, "No, I've asked the Lord to stop the rain at six o'clock so that we can have our Victory Circle. So we are going to have Victory Circle six o'clock outside."

수년전에 바로 이 주변에 수많은 히피들이 있었습니다. (그 히피들은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만 면도를 하여 변장했습니다.) 우리는 IDYLLWILD에서 여름 캠프를 가졌습니다. 사실 내가 알기로는 여름 캠프의 사진이 교회 사무실에 아직도 걸려 있습니다. 어느날 오후 저녁 시간 즈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냥 쏟아 붙는것 같았습니다. 지붕이 양철지붕이라서 비의 강도가 더욱 심한것 같았습니다. 여름 산에서 내리는 폭우는 번개까지 치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광고하기를 바깥에 있는 빅토리 씨클에서 모임을 갖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안 돼요, 비가 내리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알아, 내가 주님에게 6 시에 빅토리 씨클에서 모임을 가질수 있도록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니 6시에 바깥에 있는 빅토리 씨클에서 모일것이다” 라고 광고했습니다.

Five minutes to six the rain stopped. We had victory circle. At five minutes to seven, I said, "OK you better get into the Fellowship Hall pretty quick, because I asked the Lord to hold off the rain until the evening service." So we got into the evening service, and at five minutes after seven it started pouring again. They said, "Ah ha, you said seven o'clock you told the Lord, and it's five after seven." I said, "Well, He knew better than I did that you needed more time to get into this place."

5분 후에 비가 멈추었고 우리는 빅토리 씨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7시 5분 전에 나는 “좋아, 펠로우쉽 홀로 빨리 들어가라. 저녁 예배때 까지 비를 내리지 말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 예배에 들어 갔고 7시 5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아하, 목사님이 7시에 주님께 기도했고 이제 7시 5분입니다.” 나는 “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더 걸릴것을 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All during the service it poured rain. And so I said after the service, "OK you can go up to snack bar for a half hour, but be in your cabins by ten thirty." It quit raining. They went up and had their snacks and those that didn't get in by ten thirty got soaked. It started raining again. Hey, I'll tell you after that those kids sort of left a distance between themselves and me for a while.

예배를 드리는 동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마친 후에, “자 이제 그러면 한시간 반동안 휴게실에서 쉬고 난후, 10시 반까지 각자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나자마자 비가 또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휴게실에 가서 취침시간까지 스낵도 먹고 10시반까지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던 후에, 그 아이들과 나 사이에는 얼마동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But Elijah was a man of like passion and he prayed it would rain not and he prayed again and it rained. We so many times are guilty I think as the children of Israel of limiting that which God would do just by our unbelief.

[Now] if any of you err from the truth and one convert him; Let him know, that he which converts the sinner from the error of his way shall save a soul from death, and shall hide a multitude of sins (5:19-20).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니 비가 그쳤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불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5:19-20)

Now if one errs from the way and you convert him, you don't convert him by confirming him that everything is all right. "Oh go ahead. God is merciful. God is gracious. It doesn't really matter." But you convert him by bringing him away from that sin, not giving him assurance in his sin. I don't think we should ever assure anybody in sin. I don't know that the Bible assures anybody who is in sin. It assures those that are in Christ. And all the scriptures that speak of assurance are to those that are in Christ.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ose that are in Christ" (Romans 8:1). But if you are not in Christ there is condemnation.

만일 누가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를 돌아서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를 모든 것이 다 잘된다는 말로 확신시킴으로 돌아서게 해서 안됩니다.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예요. 그러니 상관 없어요” 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함으로 그를 구원하는것이 그의 죄 가운데서 그에게 확신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죄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확신을 준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안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So if a person errors seek to turn them back to the walk of faith in Christ, for you will save their soul from death and you will hide a multitude of sins.

Next week we get into Peter's epistles, which are fascinating and rich, and so we will do the first two chapters of first Peter next Sunday evening.

그래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여러분들 역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다음주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서신을 살펴보려합니다. 베드로서신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 잡으며 은혜가 풍부합니다. 다음주 주일 저녁에는 베드로 전서 1-2장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서 마치겠습니다.

And now Father, even as James has exhorted us, help us that we might b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And as we have heard these exhortations from Your Word tonight, and as we were listening Your Holy Spirit spoke to our hearts about different areas, to some of us about our tongues, to others about envying and strife, to others about the lust, to others about the friendship with the world and the desire for worldly things. Lord, even as Your Spirit has spoken to our hearts tonight, let us give heed to the Word and be doers of the Word. Help us, Lord, that we might indeed love one another, pray one for another, encourage and strengthen one another, use our tongues to bless and to strengthen each other and to encourage each other that we might indeed be the children of God and bring forth fruit unto eternal life.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밤에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혀를 제어하게 하시고, 시기와 욕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벗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를 서로 축복하는데 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며 영광돌리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